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지속되는 가뭄 극복위한 총력 대응 나서

윤혜진 기자 | 승인 2026.08.08 12:40

물절약 홍보현수막 게시 및 주민 동참유도, 퇴수재활용 및 하천준설 간이양수 추진

[국제아이저널 =경북 윤혜진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이윤철)가 최근 지속되는 강우 부족과 폭염에 따른 가뭄극복을 위해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물절약 홍보현수막 게시 및 주민 동참유도, 퇴수재활용 및 하천준설 간이양수 추진©국제저널

칠곡지사는 최근 저수율 하락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가뭄대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이 가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물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요 영농현장 및 용배수로 주변에 '물절약 홍보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를통해 논물 가두어 쓰기, 농경지 수로정비 등 일상속 물절약 실천요령을 전파하며 물부족 및 가뭄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이와함께 실질적인 용수확보를 위한 현장대책도 가동중이다. 칠곡지사는 용수로로 거쳐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농업용수 퇴수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버려지는 물을 모아 간이양수를 통해 상류의 용수로에 재공급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자원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관계자는 "최근 강우부족으로 인해 농업용수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확보 가능한 모든 수자원을 동원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물부족으로 영농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칠곡지사는 가뭄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상상황 및 저수율 변동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용수공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혜진 기자 ijj@ijj.co.kr